

전남도, 지속 가능 '해양수산 생태계 구축' 10대 시책 추진

시군·수협 관계회의의... 주요 정책 공유·현장 중심 건의 사항 수렴
활력 넘치는 해양 환경 조성·스마트 산업화·미래산업 육성 등

전남도가 올해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생태계 구축, 전남 미래 경제 선도'라는 목표를 위해 지속가능한 어촌어항 관리, 활력 넘치는 해양 수산 환경 조성, 혁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산업화, 부가가치를 높이는 미래 산업 육성 4대 추진방침과 10개 시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도청에서 도, 시·군, 수협, 수산업경영인회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해양수산관계관 회의를 열고 시·군, 수협, 어업인 등과 함께 시책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또 최근 선박 관련 대형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안전점검과 대응 매뉴얼 정비에 협의하고, 목포시를 비롯한 16개 연안 시·군과 유관기관의 제도 개선, 예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군, 유관기관에서는 ▲이상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건의(여수시)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국비 확보(순천시) ▲녹동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고흥군) ▲유해생물(해파리) 구제사업 지원금 인상(보성군) ▲마린길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확대(장흥군) ▲김 활성처리제 지원 확대(강진군) ▲전북 가두리 갑축 사업 도비 지원(완도군) ▲기선권현량 조업금지구역 조정(진도군) ▲어구·부표 보충금제 확대 시행(신안

군) 등 총 37건의 해양수산 분야 현안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업 환경변화와 귀어·귀촌 유입 확대 등 어촌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어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 어업 현장의 스마트화·자동화 도입 등 현장 맞춤형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수산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어업 규제완화와 관련 시범사업이 TAC(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추진되며,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 시행 된다. 배합사료 직불제도 지원 대상을 해수면 전체 어종으로 확대하고, 어선원 재해보험도 전체 어선이 당연 가입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외에도 수산물품 국제식품인증 취득 지원 예산이 2억원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은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수산시장 역시 확대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봄아~ 어디쯤 왔니"

광주 서구가 주관하는 제4회 오이길 걷기대회가 '함께 돌봄의 시작, 겨울을 걷고 봄을 꿈꾸다'를 주제로 22일 광주천 일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동천교 하부를 시작으로 광운교까지 5.2km를 걷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회-정부-광주시, 기후위기 대응 '맞손'

시청서 비상자문 회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기구 조성 등 논의

광주시와 국회,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의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입법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으로 출범했다.

환경경제학자인 홍중호 위원장을 비롯한 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현권 전 의원,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 등 위원 15명으로 꾸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홍중호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12명과 강기정 광주시장, 박해정 농림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농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다뤘다. 영농형 태양광은 3~4m 높이의 구조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상생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농민·지자체·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 농촌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내륙지역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홍중호 자문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농업과 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내륙도시인 광주에 걸맞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 지원을 통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역상품권 2222억 선제 발행해 소비 촉진

전남도 판매량 전년보다 1.3배 증가... 3500억 소진시 추가 발행

전남도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222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것으로 전남도의 적극적인 소비 촉진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경기 침체, 비상계엄 등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시·군과 협

력해 지난 1월부터 350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선제적으로 발행했다.

할인율은 1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선제적으로 발행한 3500억원이 소진되면 시·군에서 추가로 518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실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시민들은 "물가

가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덕분에 할인 혜택을 받아 장보기에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 골목 상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국비 지원을 결정해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명맥 끊길라" 무등산 수박 지키기

광주시, 3개년 계획... 예산 4.5배 늘려 품질 향상·소득 보전

광주시가 지역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 지키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23일 '무등산수박 육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을 지난해 1억1000만원에서 올해 4억9600만원으로 4.5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 금곡·충효동 일대에서 재배되는 무등산 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2~3배 크고 당도와 감칠맛이 뛰어나 예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왔지만, 재배 농가 고령화와 급격한 기후변

화 등으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무등산 수박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육성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우선 무등산 수박 재배 농가가 2000년 30농가(12ha)에서 올해 7농가(2.5ha)로 급감한 점을 감안해 낮은 소득 보전을 목표로 생산장려금을 제곱미터(㎡)당 770원에서 1950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후 변화에 대비한 차광·차열 시설과 연작 장애 방지를 위한 토양 개량제도 지원한다.

종자는 퇴화가 진행될 수 있는 기존 자가체종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 등이 우량 종자를 시험 포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무등산 수박 공동 직판장도 세단장한다. 시는 이 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무등산 수박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4.5배 늘어난 4억 96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일부에선 오래 전부터 무등산 수박 위기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단일한 농장 대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택승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무등산수박이 전국 특산품 중 진정한 명품으로 거듭나고 시민들에게 오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남구 구립 장난감도서관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

광주 남구 양림로 73, 서양새마을금고 양림지점 3층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광주 남구 용대로183번길 13(방림동 구림카리타스 어린이집 옆)

이용 시간

평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토요일 09:00~13:30 (휴게시간 12:00~12:30)

휴관일 매월 첫번째, 세번째 화요일 / 임시휴관일 / 법정공휴일

이용 안내

대상 남구 관내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

가입 현장방문 > 가입신청서 작성 > 회원카드 즉시 발급
구비서류 및 연회비 납부

이용 방법

대여수량 1인당 2회 2점 이내

대여기간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 시 1회 연장 가능)

이용횟수 월 3회로 제한

광주광역시 남구
GWANGJU NAMGU